혹과 업으로 분단, 전도의 시초
〈惑〉 〈業〉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㊱ 중생전도와 세계전도

〈원문〉

"아난아, 어떤 것을 세계전도(世界顚倒)라 하는가 하면 이 혹(惑)과 업(業)으로 분단(分段)이 허망하게 생기느니라. 이를 인해 계(界 : 공간)가 성립되고 천류(遷流)하여 머물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해 세(世 : 시간)이 성립되느니라. 삼세와 사방이 화합하여 서로 곱하여(涉) 져 변화하는 중생이 열두 종류를 이루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세계가 움직임(動)을 인하여 소리(聲)가 있고, 소리를 인해 색(色)이 있고, 색을 인하여 향(香)이 있으며, 향을 인하여 촉(觸)이 있고, 촉을 인하여 미(味)가 있으며, 미를 인하여 법(法)을 아나니 여섯 가지 어지러운 망상이 업성(業性)을 이루기 때문에 12가지 구분(區分)이 이로 말미암아 윤전(輪轉)하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세간의 성(聲)·향(香)·미(味)·촉(觸)이 12가지 변화를 다하여 한 바퀴 돌게 되느니라. 이 윤전하는 뒤바뀐 상태를 타는 까닭에 이 세계의 난생(卵生), 태생(胎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유색(有色), 무색(無色), 유상(有想), 무상(無想), 비유색(非有色), 비무색(非無色), 비유상(非有想), 비무상(非無想)이 있느니라."

〈강설〉

〈능엄경〉에서는 중생과 중생이 사는 세계가 전도(轉倒)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중생전도와 세계전도의 두 가지 전도를 밝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매우 신비하고 난해한 대목이다. 혹(惑)과 업(業)으로 분단이 생긴 것이 전도의 시초다. 분단(分段)이란 목숨의 한정(限定)이 있고 몸의 형단(形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중생의 생사를 분단생사(分段生死)라고 말한다.

수명의 길고 짧음과 신체의 크고 작음 등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육도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의 생사가 모두 분단생사다. 상대적인 말에 변역생사(變易生死)가 있다. 분단으로 인해 계(界)가 생기고 세(世)가 생긴다고 하였다. 계(界)는 공간이고 세(世)는 시간이다 혹(惑)과 업(業)으로 인한 분단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이 성립되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삼세(三世)와 사방(四方)이 서로 섭(涉)하여 변화하는 중생이 12종류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섭(涉)한다는 말은 곱해진다는 말이다. 〈금강경〉에서는 9류 중생을 말하는데 〈능엄경〉에서는 12류 중생을 말하고 있다. 천류(遷流)란 물이 옮겨 흐르는 것인데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천류하면서 사방을 섭(涉)하므로 12류가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간적인 동요가 일어나면서 소리(聲)가 있게 되고 소리를 인하여 색(色)이 있고, 색을 인하여 향(香)이 있으며, 향을 인하여 촉(觸)이 있으며, 촉을 인하여 법진(法塵)을 안다 하였다. 이른바 육진(六塵)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처음 움직이는 동(動)으로부터 차례차례 생겼다는 것이다. 육진의 생기차제(生起次第)가 설명된 것이다. 향(香)은 냄새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물질인 색(色)은 어느 형태이든 냄새가 있는 것이다. 이 육진(六塵)이 어지러운 망상을 만들어 업의 습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중생의 종류에 따라 습성이 다르다는 뜻이다. 육도를 순환하는 것이 윤전(輪轉)인데 이 말은 윤회전생(輪迴轉生)의 줄인 말이다. 윤회의 바퀴가 형성되어 돌면서 굴러가는데 12생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윤전하는 것이 여래장묘진여성인 각(覺)을 등진 것이므로 전도(顚倒)라 하는 것이다. 이 전도된 모습을 타고 12류 중생이 있게 되었다고 중생의 생기원인(生起原因)을 말하고 있다. 탄다(乘)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다. 12류 중생을 말하면서 난생(卵生)을 먼저 들어 말하는 것도 〈능엄경〉의 특색이다.

난생(卵生)은 상(想)으로 생기는 상생(想生)이다. 보통 사생(四生)을 말할 때 태생(胎生)부터 먼저 말하는데 태생은 정(情)이 많은 정생(情生)이므로 난생보다 움직임이 느리다. 혹(惑)과 업(業)의 분단에서 생긴 동요(動搖)가 상(想)으로 시작되므로 태생(胎生)보다 먼저가 되기 때문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32상이 원만히 갖춰지려면…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㊱ 32상 80종호

자연지(自然智)는 보살도 10지와 묘각도에서 갖추어지는 지혜이다. 자연지를 갖추게 되면 여래장 연기의 원인과 과정을 알게 된다. 일체종지(一切種智)는 등각도에서 갖추어지는 지혜이다. 대적정문과 대자비문이 불이문을 이루었을 때 갖추어진다. 불지(佛智)는 묘각도에서 갖추어지는 지혜이다. 여래지(如來智)는 묘각도 이후에 정토불사를 행하면서 갖추어지는 지혜이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6바라밀과 생멸수행에 있어서 6바라밀은 제도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생멸수행의 6바라밀은 스스로 갖고 있는 생멸심을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진여수행의 6바라밀은 스스로가 분리시켜놓은 생멸심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멸수행의 전체 과정은 진여심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요소를 성취하면서 생멸심을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진여수행의 전체 과정은 분리시켰던 생멸심을 끌어안으면서 진여심과 생멸심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다음은 32상(묘법연화경 제12 제바달다품)이다. 32상이란 부처님의 몸이 갖고 있는 32가지 특징을 말한다. 몸의 제도와 깨달음, 다른 생명을 이롭게 했던 공덕으로 갖추어진다. 1. 발바닥이 평평하다. 2. 발바닥에 수레바퀴 문양이 있다. 3. 손가락이 가늘고 길다. 4. 손발이 매우 부드럽다. 5.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얇은 물갈퀴가 있다. 6. 발꿈치가 원만하다. 7.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8. 장딴지가 사슴의 다리와 같다. 9. 팔을 늘어뜨리면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10. 남근이 오므라져 숨어있는 것이 말의 양물과 같다. 11. 키가 두 팔을 편 것과 같다. 12. 모공에 새까만 털이 나있다. 13. 몸의 털이 위로 쏠려있다. 14. 온몸이 황금빛이다. 15. 항상 몸에서 솟는 광명이 한 길이나 된다. 16. 살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17. 발바닥, 손바닥, 정수리가 모두 편편하고 둥글며 두껍다. 18. 두 겨드랑이가 편편하다. 19. 몸매가 사자와 같다. 20. 몸이 크고 단정하다. 21. 양 어깨가 둥글고 두툼하다. 22. 치아가 40개이다. 23. 치아가 희고 가지런하며 빽빽하다. 24. 송곳니가 희고 길다. 25. 뺨이 사자와 같다. 26. 목구멍에서 향기로운 진액이 나온다. 27. 혀가 길고 넓다. 28.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린다. 29. 눈동자가 검푸르다. 30.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다. 31.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나있다. 32. 정수리에 살이 불룩하게 나와 있다.

32상이 갖추어지려면 32진로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제도해야 한다. 32진로수행을 하려면 몸의 내부에 12개의 기점을 세워줘야 한다. 12개의 기점을 서로 연결해서 32개의 삼각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32진로 수행이다. 몸 안에 기점을 세우는 방법을 단법(壇法)이라 한다. 호흡법(呼吸法)과 발성법(發聲法), 인법(印法)을 활용해서 몸 안에 12개의 단(壇)을 세운다. 앞 기둥 세 기점, 중간 기둥 여섯 기점, 뒷기둥 세 기점이 세워진다.

몸 안에 세워진 단(壇)은 선정의 주체로도 활용되고 자기제도의 방편으로도 활용된다. 진여문의 보살들과 일치를 이루는 마음 거울로도 활용한다. 단(壇)을 세우기 위해 활용하는 호흡법은 나선호흡과 살갗호흡, 코숨호흡과 배숨호흡이다. 발성법(發聲法)은 자음발성법과 모음발성법, 문자발성법이 함께 쓰인다. 인법(印法)은 단이 세워지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생명과 생명, 공간과 공간이 서로를 연결하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

첫째는 신경 억제를 통한 무념처의 증득이다. 둘째는 교감신경 에너지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외기의 집약이다. 넷째는 서로 다른 생명에너지를 융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신경 억제를 통한 무념처의 증득은 나선호흡을 통해 성취한다. 교감신경 에너지를 촉발시키는 것은 코숨호흡으로 성취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㊱ 육바라밀의 적정처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그 때이다

진리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는 것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없고, '한다, 하지 않는다.' 는 것에 의해 차이가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거나 나중에 나타나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식이나 사량분별하는 마음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기에 행위 없이 나타난다. 이때의 행위 없음은 동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작용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한 번의 돌아보는 앎에 있다. 이때 돌아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는 일이지만 특별함이 없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다. 그것이 물질에서 일어나든, 느낌, 지각, 의도, 의식에서 일어나든 우리가 평상시에 무심히 항상 사용하는 것인데, 그때만큼은 그것이 '나' 라고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별개의 일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에 항상 일부분만을 알고 있었다면(물론, 그 순간의 생각으로는 모두 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때는 온전히 그것으로 보고 듣게 된다. 그러니 따로 분별하여 느낄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인식할 필요도 없이 온전히 아는 마음이 되어버린다. 그때는 원인도 결과도 없어서 무엇을 하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다.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곳이 없으니 어디로 흐르는 것도 없다. 이때의 앎은 아름다운 동행이 된다. 진리와 행위가 동행하게 되면 번뇌는 생겨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적정처' 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 제4, '묘행은 머물지 않는다[妙行無住分]' 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아름다운 동행으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수승한지 바르게 말씀해 두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布施)를 해야 하나니, 이를테면, 사물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그 외의 온갖 것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느니라." 이때의 복덕은 일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보시를 할 때는 그를 불쌍히 여겨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혹여 나중에 나도 저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 그런 마음이 보시의 행위를 통해 성숙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을 내가 한다.' 는 마음 없는 행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때를 나와 너가 없는 '적정처' 라고 말한다. 보시는 그런 적정처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보시의 복덕이라 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정수를 얻은 것은 다이아몬드나 부처의 사리와 같고 광음천의 궁전과 같아 세간의 눈으로 소멸되지 않는 일이로다. 정법을 얻어 거기에 머물고 여래의 지혜가 구족하며 비구가 평등성지를 얻으니 구름 사이에도 찰나를 보도다. 신기루나 환상 등은 찰나간에도 색상이 있지 않지만 실재하지 않는 색상임에도 마치 진실한 것처럼 보도다."

바라밀을 실천하는데 처음부터 바른 적정처를 알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바르게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온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저축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진정한 바라밀의 뜻도 아니다.

바라밀은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수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살아갈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알기 위해 많은 서적을 연구할 필요도 없다. 오직 바라밀의 실천에서 나와 너의 실체 없음을 알고,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인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을 알아 무명의 안개를 걷어 낸다면 지혜로운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디에도 있다거나 있을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을 짓지 않으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 이전의 일로 속상할 것도 없고, 나중의 일이라는 것도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이 그저 만족하고 즐거울 따름이다. 하루를 따로 구분하여 정함도 없으니, 하고 있는 때가 그때일 뿐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고향의
아내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미얀마 이주민 아우룽 툰씨, 소뇌 내출혈로 생명 위협
가까스로 살아났지만…병원 빚 2000만원에 고향 못가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